

엄마랑 아이랑 발야구팀

과천 주공 8, 9단지 9가정 만들어

12일 오후 6시 과천시 부림동 관문국교 운동장- 30,40대 주부와 이 학교 남녀 어린이 등 30여명이 발야구 게임을 시작했다.

가만히 서있어도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후덥지근한 날씨도 아랑곳없이 이들은 '엄마팀' '자녀팀'으로 나누어 배구공을 발로 차며 운동장을 누볐다.

"엄마, 아들이 공을 찰 땀 공 좀 잘 던져주지."

"지금은 서로 적이잖니?"

"엄마, 그렇게 차면 발에 멍들어요. 발끝으로 차세요."

아이들의 불평과 응원, 어머니들의 환호와 웃음소리로 커다란 운동장엔 즐거움이 가득차 보였다.

1시간30분 남짓 '격돌한' 결과 엄마팀이 25대 5로 자녀팀에게 패배. 대부분 국교 2~6학년인 어린 자녀들이지만 "아무래도 엄마들 운동실력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엄마팀 선수들은 아쉬워했다.

이 이색 발야구팀은 과천주공 아파트 8·9단지에서 사는 아홉가정의 엄마와 그 자녀들로 구성돼있다. 지난 6월21일 창단된 발야구팀은 일주일에 한번씩 평가전을 갖기로 했으나 개막게임 이후 장마비가 오락가락해 지난 12일 겨우 3차대회를 가졌다.

처음 세가정에서 10명으로 시

작해 벌써 아홉가정 30여명으로 늘어난 발야구팀은 자녀에게 공부하기만을 강요하는 풍토속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좋은 본보기로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평소 아들 승민(10·관문국3)군의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발야구를 하곤 하다가 이웃 어머니들을 설득, 발야구팀을 발족시킨 이남호(40)씨는 "어머니들이 공부에

결의가 대단하다. "처음엔 규칙도 잘 몰라 공하고 같이 굴러다니기도 했다"는 두 아들의 어머니 박재형(41)씨는 "둘째 녀석이 '엄마 똥똥해도 제법 잘 뛰던걸요'할 땐 기분이 좋았다"고 털어놓았다.

발야구 게임이 있는 날은 직장에서도 조금 일찍 퇴



"반칙하지 말고 열심히 뛰자." 엄마와 자녀들은 게임 시작에 앞서 깨끗한 경기를 다짐했다. <김선규 기자>

"엄마가 친구처럼 느껴져요"

거리 좁히고 대화폭 넓혀...아빠도 참여 '아빠따로인 가족문화' 새롭게 바꿔놓아

대한 관심 못지 않게 아이들 놀이에 함께 참여하면 아이들과의 거리감이나 대화단절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다"고 말했다.

개막게임에서 14대 4로 크게 졌던 엄마팀은 7월초 2차게임에서 14대 7로 점수차를 조금 좁혔다가 이번 3차 게임에선 다시 25대 5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자 "4차전에선 이기고야 말겠다"고

근해 6학년, 5학년인 아들·딸과 운동장에 나온다는 송향섭(39·여성신문)사업부장)씨는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다보니 집에선 몰랐던 아이들의 숨은 성격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거리를 좁히고 공동의

대화폭을 넓히는 방안의 하나로 다른 동네에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하는 발야구가 신나는지 "엄마랑 같이 하니깐 더 재미있어요" "친구들과 '아우이다' '흠이다'하면서 싸우

는 일이 없어졌어요" "엄마가 친구처럼 느껴져요" "학교 친구들이 '우리도 팀에 넣어달라'고 할 땐 어깨가 으쓱해져요"라고 저마다 자랑한다.

과천 발야구팀은 직장일로 바쁜 아버지들에게도 자극제가 돼 "엄마랑 너희만 하니? 아빠도 같이 하자"는 가정이 늘어날 만큼 '아빠 따로인 가족문화'도 바뀌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로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발야구팀 어머니들은 한여름 더위도 피하고, 남편들도 발야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름 방학 동안은 새벽 6시에 게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연숙 기자>